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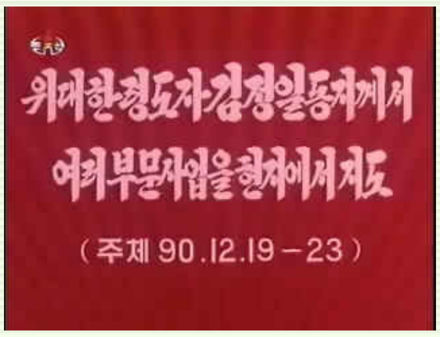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5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15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91(2002)년 2월 8일 조선중앙방송에서 방영



역사의 유례없는 시련속에서 당과 수령,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강계정신을 창조한 영웅의 땅 자강도.

주체90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기간에 자강도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여러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눈덮힌 험한 길을 헤치시고 또다시 자강땅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자강도 인민들.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을 때 자신에게 힘을 주고, 의지가 되었다고 그토록 정깊게 추억하시며 거듭 찾아오시여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러러 가슴속 격정을 터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강계닭내포국집을 현지지도 하시였습니다.

자강도에서는 강계닭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봉사하는 닭내포국집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자강도의 현대적인 닭공장을 큼직하게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부어주시며 닭공장에서 나오는 닭내포들을 가지고 강계시민들을 위한 봉사기지를 잘 꾸릴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정속에 이렇듯 훌륭한 닭내포국집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수방탄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폭국집에서 하루에 몇 명이나 봉사할 수 있는가, 강계닭공장에서 그만한 원자재를 대줄 수 있는가도 알아 보시고,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요리의 가지수와 질도 헤아려 보시였습니다.

닭내포 요리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세심히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닭내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봉사하여 주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자신의 기쁨은 언제나 인민의 행복속에 있다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끼니를 번져가며 일하다가도 인민들이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피곤도 한시에 풀리고 힘이 솟는다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강계 포도술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두해 전 공장에 찾아오시여 자강도 노동계급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음료를 생산보장하고 포도술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공장을 현대화할 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은정어린 대책까지 몸소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면모를 일신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강계 고려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제약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고려약 제조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 노동계급이 약제조설비를 깨끗하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면서 도에서 소문없이 현대적인 고려약공장을 꾸려놓고 인민들에게 효능높은 약제품들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는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자강도 인민들의 철석의 신념, 오늘도 자강땅을 뒤흔들며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동향

1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노작

2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2)

세기와 더불어

4 2장 1절 화성의숙(2)

칭송

6 김성락목사의 인생전환
6 태양찬가
6 세계 인민들은 **김정일**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7 선군정치의 뿌리
7 민족주체적 역량의 마련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
8 독버섯
8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12-13일)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5)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년 2월 13일 뉴스
10 선군혁명 천만리 – 다박솔언덕에서(4) 로동신문 정론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1 사회주의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

아리랑뉴스

12 부시방한 앞둔 ≪지금은 비상시국≫
12 북 미사일 해법, 경제 보상에 달렸다
13 ≪부시 방한≫에 밀려난 ≪방한 반대 시위≫
13 ≪월간조선≫의 색깔공세에 내려진 철퇴
13 무장 미군병사 민간인 폭행 ≪말썽≫
14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6)
14 진보정당 ≪우리도 뛴다≫
14 전쟁제국 迷國 Go Home!

통일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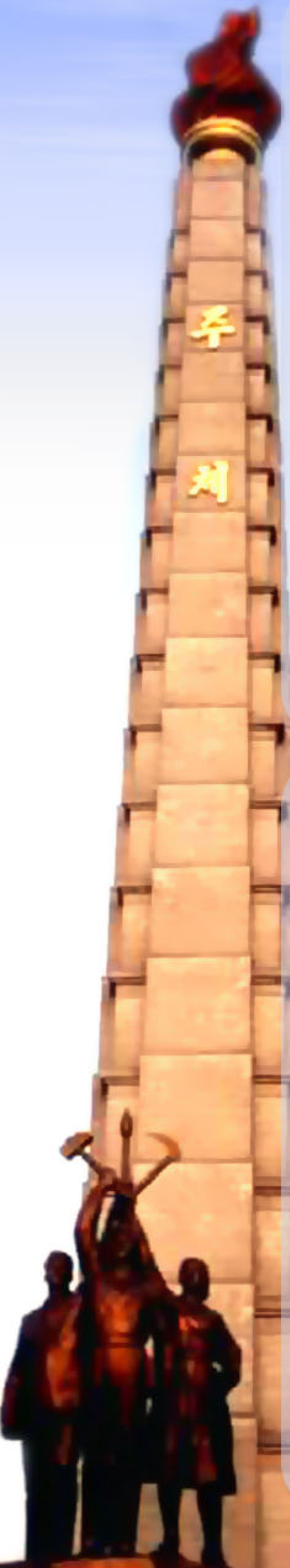
15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광고

15 구국전선 468호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2)

주체86(1997)년 6월 19일



우리 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은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가질 수 있으나 민족성을 복고주의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온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민족성에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은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적극 살리고 끊임없이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게 하였다. 민족성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당의 정책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주의를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민족적 단결의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그것은 온 민족을 단합시키고 결속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민족성을 중시하고 민족성에 기초한 각계각층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이 과정에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의 쐐기를 박으려고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처럼 떠벌이지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에 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그 진보적 측면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 수 없다.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민족주의 일반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너울을 쓰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부르조아민족주의이며 민족이기주의, 민족배타주의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공통성을 기본으로 내세워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합작을 주동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그들이 끝까지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꾸준히 이끌어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커다란 기여를 하도록 하였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더욱이 외세와 반동들의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민족성이 짓밟히고 사멸되어 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민족성을 적극 내세우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전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게 되고 민족이 이질화되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수 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모든 조국통일방침들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는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민족성을 살리고 구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들을 성숙시켜 나갔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넋과 정기를 빛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민족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본고리로 보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민족적 우수성을 훌륭히 창조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인민들을 무장시켰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확립은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으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민족성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하였다.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즐겨 부르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더 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으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치고 있다.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경험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묶어 세우고 그들의 애국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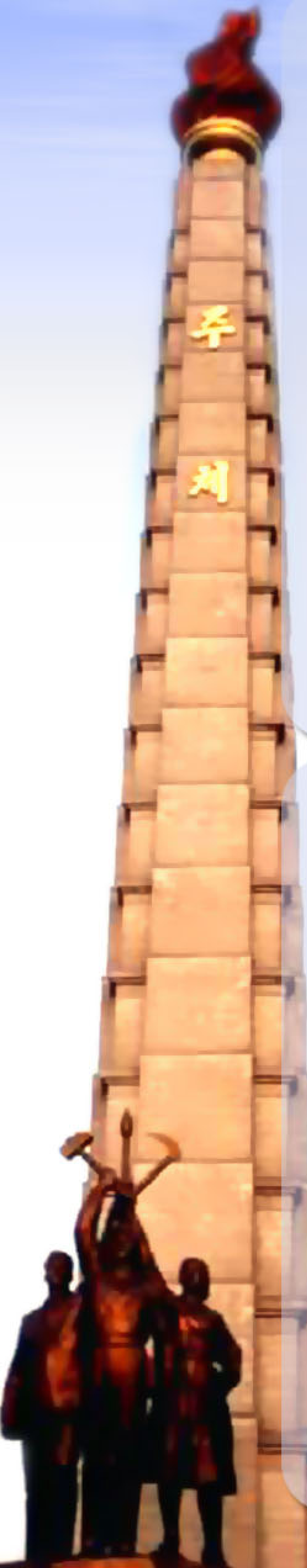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자주성의 기치 밑에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었다. 역사는 수많은 애국자들과 애국적인 투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이 자주의 신념과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치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지켜 온 공산주의혁명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혁명위업과 같은 참다운 민족자주의 혁명위업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독창적인 길을 열어놓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의 빛나는 결실은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 특성에 맞게 우리 인민 자신이 건설한 우리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애국애족의 사회주의라는 데 그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이 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훌륭히 결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을 지니고 승리의 한 길을 걷고 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더욱더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계급적 원칙과 함께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대국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에 배치되는 것처럼 비방하였지만 결국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정치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체적 입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한때 정통 사회주의자, 국제주의자로 자처하던 자들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국제주의를 배반하였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국제주의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의 보루를 철옹성같이 지키면서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혁명적 당들 진보적 인민들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운동의 재건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2.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였고 역사에 의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이 노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 나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문제를 자신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외세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곧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다.



가야 한다. 애국애족의 입장을 지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으며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올바른 민족관을 가지도록 교양 하는 데 힘을 넣고 있으며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같은 문학예술작품들도 품을 들여 만들고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기본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 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려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데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계급을 어떻게 대하며 계급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 차이나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참답게 살며 민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떤 사회제도 하에서 어느 계급과 계층에 속해 있건, 국내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을 이끌어 가는 당이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그 운명을 책임지는 입장에 서는 것은 자기의 영도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노동계급의 당이 계급적 이념과 요구만을 절대화하고 민족적 이익을 홀시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고 애국애족의 투쟁을 옳게 영도할 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바로 실현해 나갈 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당은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하며 인민대중을 옳게 이끌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견결히 수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장구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애국애족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긍지 높은 당이며 인민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었으며 조선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전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인민의 애국애족의 자랑찬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전체 우리 인민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전통을 계승하여 나라와 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헌신적으로 관철해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자기나라와 민족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주적 권리이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문제를 자신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외세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곧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의사를 따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던 나라와 민족들이 처한 파국적 운명은 이것을 확증하여 준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이 클수록 자기의 주견을 더욱 확고히 내세워야 하며 자신이 결정한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한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고 난관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앉아 자기의 신념과 자신이 택한 길에서 물러서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된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아무리 엄혹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며 견인불발의 의지와 투쟁으로 자기가 택한 길 자주의 길로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서 언제나 자기 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해야 한다. 남의 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본따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다운 태도가 아니다. 남의 것 가운데서 좋은 것 앞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기본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인민은 국가사회제도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조직하는 데서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자기 식을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적 난관이나 민족분쟁의 재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그 극복방도를 자체로 찾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를 돌아치면서 내흔들고 있는 그 무슨 처방이라는 것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족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묘안도 아니며 저들을 분칠하고 어부지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을 받아들인 데서는 사회경제적 난관이 더 심각해지고 민족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난관이나 민족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병집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을 배격하고 자기식의 처방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의 길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면서 혁명위업을 전진시켜 온 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 식에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이 있고 애국애족의 넋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남의 의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견과 자기식의 혁명방식을 확고히 견지하였기 때문에 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어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식대로 살고 혁명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전진시키며 나라와 민족의 끊임없는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주체적 역량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담보이다.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는 데서 기본은 자체의 정치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자면 물질경제적 역량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자체의 역량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역량,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단결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기초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가장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민족이자 인민이고 인민이자 민족이며 그 통일단결의 중심은 당과 수령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족적 단결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로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전변시킴으로써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자주적 주체의 위력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내일 계속됩니다)

1권 제2장

잊을수 없는 화전

1. 화성의숙
2. 환멸
3. 타도제국주의동맹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5.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1. 화성의숙 (2)

정작 집을 나서고보니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였다. 아버지의 유해가 묻혀있는 양지촌을 돌아보고 멀리서 나를 바래주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아보니 마음이 산란하여 가볍게 발을 옮길수가 없었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할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다. 무송과 같은 벽사지에서 어머니 혼자 가정을 유지해나간다는 것이 그때 형편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길을 떠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한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송에서 화전까지는 륙로로 300리가량 되였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은 풍을 친 한림차라는 것을 타고 쉽게 다니는 길이였지만 로자가 변변치 못한 나는 그런 호강을 할 처지가 못되였다.

화전은 송화강과 휘발하의 합수목으로부터 오륙십리 떨어진곳에 자리잡고 있은 길림성관할의 산간도시로서 남만치고도 손꼽히는 독립운동중심지의 하나였다.

내가 길을 떠날 때 무송의 어떤 독립운동자는 나에게 화성의숙의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하니 고생스러울것이라고 걱정해주었다. 독립군의 재정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화성의숙의 숙식조건이 변변치 못하겠지만 그런 곤란 같은 것은 문제로 도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무명옷을 입고 타개죽을 먹으며 자라난 나에게는 화성의숙이 아무리 가난하면 우리 만경대집보다야 더 가난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간이나마 불안스럽게 생각한 것은 나이도 어리고 군인경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를 화성의숙이 어떻게 맞아주겠는가 한는 것이였다. 그렇지만 화전에 김시우가 있고 화성의숙에 강제하와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의지로 되였다.

나는 화전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일러준대로 김시우의 집부터 찾았다. 그는 정의부소속의 화전총관소 총관이였다. 총관소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은 조선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봐주는 자치적인 기구였다. 이런 총관소들이 무송에도 있고 반석에도 있고 관전, 왕청문, 삼원포 같은 고장에도 있었다.

김시우는 자성군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와 련계를 맺고 있던 독립운동자였다. 3.1인민봉기후 중국에 들어가 림강과 단동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4년에 화전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그는 화전시내에 정미소를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면서 대중계몽에 힘썼다.

그가 세워놓은 것이 남대가에 있는 영풍정미소였다. 김시우는 총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돈을 뽑아 독립군에 식량도 대여주고 화성의숙과 그 부근에 있는 조선인모범소학교에 재정적인 후원도 하였다.

나는 림강에 있을 때부터 김총관의 북방사람다운 호방한 기질과 강직한 성미에 매혹되어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해왔었다. 김총관도 나를 친아들이나 조카처럼 극진히 사랑해주었다.

뜨락에서 닭장을 손질하던 김시우내외는 내가 나타나자 환성을 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집 뜨락에는 밭에 걸채일정도로 닭들이 많았다.

나는 김시우의 안내로 화성의숙을 찾아갔다.

김시우

김시우는 정미업자특유의 쌀겨냄새가 풍기는 옷을 걸치고 나를 화성의숙으로 안내하였다.

화성의숙은 휘발하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만주의 어느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물매가 급한 초가지붕과 청벽돌로 쌓은 거무스레한 벽체가 소나무숲사이로 바라보이였다. 교사뒤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화성의숙의 기숙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숙감 강제하

교사도 기숙사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초라했다. 하지만 건물이야 초라한들 뭐라는가, 집이 너절해도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감을 눌러버리였다.

그래도 운동장만은 크고 번듯하였다.

나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화성의숙의 전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살 때 오동진이 추운 겨울날 털모자도 쓰지 않고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화성의숙의 설립문제를 두고 의논하던 일이 생각났다.

이 의숙에 입학생으로 찾아와 교사를 살펴보는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회가 끓어올랐다.

키가 자그마하고 이마가 훌렁 벗어진 중년의 인상좋은 숙장이 자기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가 의산 최동오선생이였다.

의산선생은 33인으로 부리우는 3.1인민봉기 주도자의 한 사람인 천도교 3세교주 손병희의 제자였다. 손병희가 설립한 강습소를 나온후 고향 의주에 내려와 서당을 세우고 천도교인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였다. 3.1운동에도 참가하였고 그후에는 중국에 망명하여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고 망명동포들속에서 애국적인 포교활동을 벌이였다.

숙장은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보지 못한 것이 일생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못내 가슴아파하였다. 숙장은 총관과 한참동안 우리 아버지에 대한 회고담을 벌려놓았다.

그날 최동오선생이 나에게 한 훈계가 아주 인상적인 것이였다.

≪성주는 아주 맞춤한 때에 우리 의숙에 왔소. 독립운동은 수재들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거든, 홍범도나 류린석식의 주먹구구시대는 이미 지나갔단 말이요. 왜놈의 신식전법이나 신식무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식전법과 신식무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겠는가? 바로 성주네와 같은 새 세대가 맡아 해결해야 한단 말이요.…≫

숙장선생은 그밖에도 교훈으로 삼을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숙식조건이 불편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런 곤란, 저런 곤란이 있더라도 조선독립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참고 견디라고 격려해주었다. 첫 인상에도 성미가 온화하고 놀라우리만큼 언변이 류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김시우네 집에서는 나를 위해 저녁을 차리였다. 주인내외의 정성이 엿보이는 소박한 식탁앞에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으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두리반상 한쪽구석에는 곡주도 한병 놓여있었다. 김시우가 반주를 하려고 내놓은줄로만 알았는데 총관은 뜻밖에도 잔에 술을 부어 나에게 권하는 것이였다.

나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두손을 바삐 내저었다. 난생처음으로 받게 되는 어른대접이어서 여간만 당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때 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장철호가 술을 권한 일이 한번 있지만 그것은 상제로서 받는 대접이였지 그이상의 것은 아니였다.

그런데 김시우는 나를 완전히 어른처럼 대하는 것이였다. 그는 말투도 이전날의 ≪해라≫로부터 ≪하게≫조로 바꾸엇다.

≪자네가 온다니 자네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지더군. 그래서 내 술을 한병 갖추어놓으라고 했네. 자네 아버지가 화전에 오시면 늘 이 상에서 내가 권하는 잔을 받군했네. 오늘은 자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잔을 받으라구. 자네야 이제부터는 가장이 아닌가.≫

총관이 이렇게 말하며 허물없이 잔을 권했지만 나는 가볍게 그 잔을 들수가 없었다. 줌안에도 차지 않은 조그마한 잔이였으나 거기에는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있었다.

김시우가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는 그자리에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른처럼 처신을 해야 하리라는 엄숙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였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침실 겸 서재로 리용하는 방을 내주었다. 숙장선생과도 토론이 되였으니 기숙사에 들어가 있을 생각은 아예 말고 자기 집에 눌러있으라고 오금을 박았다.

김형직선생이 림종을 앞두고 편지로 성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것만큼 자기는 그 부탁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였다.

무송에서나 화전에서나 아버지의 친구들은 이처럼 나를 위해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와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성의나 의리를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그 의리의 밑바탕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몫할 것을 바라는 아버지세대 사람들의 절절한 기대가 깔려있었다. 그 기대는 나로 하여금 조선의 아들로서, 새 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장차 아버지의 유훈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훈련을 잘하여 민중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나는 다음날부터 화성의숙에서 생소한 군관학교생활을 시작하였다. 최동오선생이 나를 교실로 데리고들어갔

당시 숙장 최동오

다. 학생들은 나를 보자 어린 독립군이 왔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였다. 어느 중대에서 심부름이나 하다가 굴러온 애숭이군대라고 짐작하는 것 같았다.

40명 남짓한 학생들가운데 나만큼 어린 학생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20살안팎의 청년들로서 그중에는 수염이 검숭검숭하게 난 아이아버지도 있었다. 모두 내 형이나 삼촌벌쯤 되는 학생들이었다.

숙장이 나를 소개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나는 선생이 정해주는대로 창문쪽 맨 앞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내 옆자리에는 1중대출신인 박차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들의 경력과 개성중에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귀속말로 간단간단히 튕겨주군 하였다.

그가 제일 존경을 가지고 소개한 교원은 군사교관 리웅이였다. 리웅은 정의부의 군사위원인데 황포군관학교를 다니었다고 한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굉장한 존재처럼 우러러 볼 때였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삼을 많이 부쳐다 먹는데 관료기가 좀 있는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박식하고 다재다능하여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였다.

박차석은 화성의숙에서 조선력사와 지리, 생물, 수학, 체육, 군사학, 세계혁명사와 같은 과목들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종이장에 의숙의 일과에 대해서도 적어주었다.

후날 무장투쟁을 할 때 내 가슴속에 아물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박차석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그가 후에 길을 잘못들었지만 화성의숙시절에는 나하고 살붙이처럼 각별한 우정을 나누면서 지냈다.

그날 오후 6중대출신의 최창걸이 10여명의 동무들과 함께 나를 만나려고 김시우네 집으로 찾아왔다. 아마 그들이 나에 대해서 첫인상을 좋게 가졌던 것 같다. 내가 하도 어린 나이로 입학하다보니 호기심도 생기고 말이라도 나누고싶었던 모양이였다.

최창걸은 머리에 큼직한 허물자리가 있었다. 넓은 앞이마와 시꺼먼 눈섭이 아주 남성적이였다.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서 머리의 허물만 아니라면 미남자라고 불리울만큼 잘 생긴 사람이였다. 그의 말투나 몸가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서글서글한 멋이 있었다. 첫 대면에서 그는 벌써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다.

≪성주의 나이가 열다섯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나이보다는 퍼그나 숙성해보이는구만. 이런 나이로 독립군생활은 어떻게 했고 화성의숙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소?≫

최창걸의 첫 질문이였다. 그는 한지붕밑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딩굴며 우정을 맺었던 십년지기라도 만난듯이 시종 입가에 웃음을 담고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간단히 대답해주었다.

내가 김형직의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 선망의 눈길도 보내면서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내가 체험한 조국의 현실을 알려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조금후에는 내가 반대로 최창걸에게 독립군시절의 생활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자기 머리에 있는 허물자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래력부터 말해주었다. 우스개를 섞어가며 구수하게 이야기를 엮어댔는데 아주 걸작이였다. 그의 이야기에서 특징은 자기를 항상 3인칭의 위치에 놓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그랬다.≫, ≪내가 속았다.≫라고 해야 될 말도 ≪최창걸이 그랬다.≫, ≪최창걸이 속았다.≫고 말하여 대화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군 하였다.

화성의숙 터전

≪최창걸이 량세봉의 수하졸병으로 있을 때였소. 한번은 개원쪽에서 밀정을 잡아가지고 가다가 려관에 들렸는데 글쎄 그 펑덩하기 짝이 없는 최창걸은 밀정을 앞에 두고 꺼떡꺼떡 졸지 않았겠소. 수십리길을 걷다나니 피곤했거든. 그사이에 그 밀정은 포송을 풀고 도끼로 최창걸의 머리를 답새기고 꽁무니를 뺐단 말이요. 다행히도 그놈이 정통은 치지 못했지. 최창걸의 머리에 생긴 ≪훈장≫은 이런 기막힌 력사를 가지고 있소. 사람이 탕개가 풀리면 최창걸이처럼 될 수 있소.≫

한두시간 마주앉아 흉금을 터놓고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였다. 청년시절에 사귄 동무들이 수백수천명이나 되는데 최창걸이처럼 자기를 항상 3인칭의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슬슬 엮어나가는 그런 걸작을 처음으로 보았다.

화성의숙의 기숙사

그후 생활을 통해 나는 그의 경력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순에서 자그마한 려관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도와 영업에 종사할 것을 원하였지만 최창걸은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집을 뛰쳐나와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가 독립군생활을 할 때 그의 할머니가 손자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여러차례 삼원포에 찾아왔지만 최창걸은 매번 나라가 망한 판에 지금 어디 제 집 려관이나 지키고 있을 때인가고 하면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최창걸, 김리갑, 계영춘, 리제우, 박근원, 강병선, 김원우외에도 남만과 국내 여러곳에서 반일운동에 뜻을 두고 화성의숙에 찾아온 수많은 청년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오후가 되면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김시우네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한두명도 아닌 숱한 학우들이 나를 찾아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처음부터 동년배가 아닌 나보다 나이가 5~10살이상되는 년장자들과 사귀게 되었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혁명활동시기의 나의 전우들가운데 년장자들이 많은 것은 그때문이였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공부하는 며칠사이에 의숙의 살림살이가 무송의 독립운동자가 말한 것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성의숙에서 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은 낡은 책걸상과 몇개의 운동기재뿐이였다.

그러나 나는 포부를 크게 가지였다. 비록 건물은 비좁고 거무칙칙하여 보잘나위없어도 그 고삭은 초가지붕밑에서 자라는 청년들은 얼마나 믿음직한가! 돈은 없지만 끌끌한 청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화성의숙이 부자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끝)

일화

김성락목사의 인생전환

민족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내외의 모든 통일인사들을 한품에 안으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하며 참다운 삶을 누려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끄시였다.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회장이였으며 ≪한국인 교회연합회≫고문이였던 김성락목사도 그러한 사람들 속에 속하던 사람이다.

주체70(1981)년 7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처음으로 방이북 김성락목사를 접견해 주셨다.

김목사는 평양태생으로서 평양숭실중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목사를 하다가 1936년 미국에 건너간 이후로 미국과 이남에서 학계, 교계에 몸담아왔다.

그는 60년대 초에 미국에 다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연합 장로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미국정객들 속에서도 친면이 넓은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북행길에 오른 것은 1980년 말에 이북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명의로 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담은 편지를 받고 그것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한편 인생말년에 고국산천을 찾아보려는 개인적 소망도 있었다.

그는 평양도착 때 조용히 와서 조용히 돌아가겠으니 자기의 방문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김목사를 접견하신 자리에서 목사부친의 반일투쟁과 미국에서 목사의 애국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서 담화를 시작하셨다.

주석님께서는 그를 애국지사라고 불러주시며 공화국의 건국역사와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였다.

담화에 이은 오찬때였다. 주석님께서는 기독교의 관행을 헤아리시어 목사에게 식전기도부터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주석님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뜻밖의 일이였다. 사실 목사는 주석님께서 식전기도까지 헤아려 주실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던 것이다. 김성락목사는 너무도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석님에 대한 칭송으로 일관된 기도를 올렸다 한다. 그에게는 주석님의 마디마디의 말씀이 상대방의 이념과 신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넓으신 도량과 친화력으로 안겨와 가슴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다.

목사는 주석님의 연방국가통일방안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한 것이라면서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정계에도 널리 알리고 교포들과 그 실천대책도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씀올렸다.

목사는 며칠후 돌아가기에 앞서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스스로 출발성명을 공식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민족도, 강산도 그 민족, 그 강산이되 오늘과 같이 놀라운 현실을 국토위에 가꾸어놓게 된 것은 위대한 주석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해 미군이 이남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분열된 조국은 주석님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대로 통일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그 방안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확신에 찬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미국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하던 뿌리깊은 숭미사대와 북의 통일방안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 완고한 입장에서의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김일성주석님과의 단 한번의 면담으로 그는 반공에서 연공으로의 사상전환, 인생전환을 결심한 것이다.

목사는 주석님과의 만남에서 겨레의 통일염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헌신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운명의 구원자의 모습을 보았고 통일을 이룩하실 위인은 오직 **김일성**주석님밖에 없다는 뚜렷한 계시를 받아안았던 것이다.

김목사는 주석님의 가르치심대로 그리고 그분 앞에서 다진 결의대로 그 이후 미주교포사회에서 많은 교포들과 교인들을 조국통일운동에 묶어세웠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이북을 방문한 김목사부부를 접견해주시고 은정어린 사랑과 믿음을 거듭 베푸시였고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통일을 보지 못하고 간 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조국통일에 기여한 그의 공적을 두고 애국에 불타는 통일인사로 높이 평가하시어 조국통일상 수상자대열에 세워주셨다.

비단 김성락목사뿐이 아닌 수많은 해내외의 통일인사들이 오늘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민족의 태양 **김정일**영도자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넋과 고매한 인품에 매혹되어 연북화해의 길을 택하고 통일성업에 헌신하고 있기에 조국통일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송시

태양찬가

마다가스까르의 노엘 하르베이

김정일
그분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영도자
세계 혁명의 영수
인류의 영원한 봄
자주의 화원을 가꾸어 가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우러를수록 새 힘이 솟고
부를수록 격정이 넘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온 세상사람들 힘을 다해 일한다 해도
혁명 위해 바치시는 그분의 하루 일에 비기지 못하리
이 세상 모든 사랑 합친다 해도
그분의 민중에 대한 사랑 따르지 못하리

김정일
그분은 절세의 위인, 21세기의 태양
그분은 사상이론의 천재, 창조와 건설의 영재
김정일
그분은 인류의 자랑, 인류의 평화와 행복
그분은 만민의 어버이, 위대한 스승

그분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이 세상 존귀한 말 고르고 골라도
천만시인 목소리 합쳐도
아름다운 선율 고르고 골라도
다 담지 못하리, 담을 수 없으리

내 지구촌이 들썩하게 외치고 싶노라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라
그분 따라 가는 길에서 울려나라
신념으로 지키자, 양심으로 받들자
김정일동지를

흠모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김정일동지를 무한히 존경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돌 경축집회가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10일에, 우간다의 루가지와 르완다의 무까미라에서 8일에 진행되었다.

집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여기에는 또한 해당 나라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집회장들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50돌 경축집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50돌을 열렬히 축하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 만세!≫라고 쓴 글발과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집회들에서는 보고와 연설들이 있었다.

파키스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서기장은 보고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역사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파키스탄철도상은 연설에서 탄생 50돌을 맞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천재적인 사상이론과 탁월한 영도력을 겸비하신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조선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를 지도자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영도를 받는 영광을 지니고 있다.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루가지지부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하기에 우간다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그이를 무한히 존경하며 우러르고 있다.

우간다대통령 정치고문은 연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활동역사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할 수 있는 영도력과 풍모를 지닌 분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신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영도를 강화하시어 조선에서 가장 우월하고 독특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르완다의 무까미라강냉이가공공장 대리지배인은 연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50년전 백두의 정기를 한 몸에 안고 탄생하시어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성장하신 데 대해 상세히 언급하면서 그이께서는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계신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조선에서 사회주의는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을 끝마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우간다의 루가지에서 진행된 경축집회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선군정치의 뿌리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 구국의 소리 2월 6일~8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창조하신 선군정치는 현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이며 정당하고 강위력한 정치방식인 걸로해서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인류가 열렬히 신봉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군정치가 얼마나 위대한 정치방식인가를 알려면 선군정치의 내용과 그 독창성, 정당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군정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완성된 정치방식입니다.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민중이라는 독창적인 선군의 원리도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고 선군의 전통도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자기식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이룩된 것이며 선군정치의 위력도 주체사상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은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야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이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입니다. 바로 그처럼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걸로 해서 선군정치는 오늘의 역사적 조건에 걸맞고 민중의 운명개척에서 항구적으로 거머쥐고 나가야할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강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군정치의 뿌리가 주체사상에 있다고 말할수 있느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자기 식대로 변혁운동을 벌여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는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세기 90년대 이북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그 추종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고난의 행군시기는 민족자주위업의 전도와 운명이 좌우되는 준엄한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역사에 유례없는 시련과 난관앞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최대의 유산인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한다는 걸 단호히 선언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그 나날은 자기 식으로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의해서 세계정치사에 처음으로 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 선군정치가 탄생되고 완성되어온 나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날로 노골화되는 조건에서 단신으로 나라와 민중,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주체위업을 추진시켜나가려면 총대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걸 통찰하시고 인민군대를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변혁운동을 추진시키는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셨습니다. 결국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끝까지 나가기 위한 전략적 대강으로 확립되고 완성된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의 뿌리가 주체사상에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뿌리로 한다는 건 다음으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군정치는 모든 실천에서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하고 강위력한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변혁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는 등 주체사상의 모든 원칙과 요구들이 선군정치에 의해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만을 보아도 선군정치는 자기의 정치,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제도, 자기의 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빛내임으로써 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식,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으로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위력한 주체적 힘에 의거하여 모든 걸 풀어나가며 튼튼한 군사력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해나가게 합니다.

선군정치에 의해 오늘 이북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이 날을 따라 강화되고 강위력한 자립적인 국방공업이 굳건히 다져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선군정치가 펼쳐진 이북에서 지난 수년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기성이론을 가지고 판단할수 없고 인류사상 일찌이 있어본 일이 없는 최상의 것이여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가장 강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걸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창조하시고 영도하시는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6.15 남북공동선언관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족주체적 역량의 마련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 구국의 소리 주체91, 1월 19일~20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왜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건 무엇보다도 조국통일의 직접적 담당자가 우리 민족자신이고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은 이처럼 우리 민족 자체의 문제이고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조국통일의 주인, 그 직접적 담당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의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단결해서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해야할 당위성은 다음으로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하에 똘똘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 민족이 대단결해서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그럴려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해서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합니다. .....원래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수 없고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민족구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될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조국통일이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 이해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로지 민족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토대할때만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의 현재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건데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간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함께 민족대단결의 사상적 기초에 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애는 민족구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고 민족적 단결의 사상적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만큼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남에서 살건 북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가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하에 하나로 굳게 단합해야하고 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대용단이야말로 가장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오로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온 겨레를 포섭하시고 통일의 길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려는 한없는 아량의 표시라 할수 있겠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앞으로도 민족대단결을 위해 애국애족의 광폭정치를 변함없이 실현해나갈 의지를 명백히 밝히셨고 애국을 지향해서 통일을 위해 나서는 모든 정당단체,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합해 나감으로써 민족앞에 지닌 의무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이론, 노선과 방침에서 철의 논리와 가장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 그리고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영도자님의 위대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 주석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분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과 노선은 가장 정당하고 현실성이 있어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가리키시는대로 민족대단결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각계 애국민중모두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방략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동참해나섬으로써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역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구국의 소리

독버섯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3일

독버섯이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해독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씨, 종 자체도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독버섯을 먹으면 그 독성에 의해 사람들은 신경조직과 소화기관, 분비선세포, 혈관, 피부조직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생명을 잃게 된다.

버섯에 대한 조회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시각으로는 어느 것이 식용버섯이고 독버섯인가를 분간하기 어려워한다.

독버섯은 외형상으로는 식용버섯보다 빛깔이 곱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독성이 들어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독버섯을 먹고 죽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곤한다. 독버섯은 자연계에 돋아나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유해로운 식물이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독버섯에 비할바없이 해독스러운 인간 독버섯이 기생하면서 온갖 해독적 작용을 하고 있다.

자연계의 독버섯은 인체에만 해독적 작용을 하지만 인간 독버섯은 인간은 물론 사회전반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고 있다.

인간 독버섯은 인간의 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빼앗고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유린하며 사회정치적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는 등 그 해독성은 매우 큰 것이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정은 인간 독버섯들에 의해 인간의 모든 것, 사회의 모든 것이 잠식당해왔고 그로인해 정치의 후진성도 면치 못했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도 억제당하고 나라의 통일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들 모두가 이 땅을 독성으로 부식시킨 인간 독버섯들이였다. 그런데 이 땅에 또 새로운 인간 독버섯이 생겨났다. 그가 바로 외롭고 청렴한 정치가, 다음 기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독성의 농도나 그 해독성에 있어서 종전의 인간 독버섯들과는 대비도 안될만큼 악성적이다. 이회창이 뿜어대는 독성이 얼마나 해독적이고 위험한가는 최근에 그 행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온 민족, 온 겨레가 갈망하고 있는 통일의 이정표이다. 온 겨레,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채택의 역사적 장면이 TV에 방영될 때 유독 이회창만이 TV를 등지고 손자들과 화투놀이를 했다고 하니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가 우리 민족의 심장부에 칼질을 하는 역적중의 역적임을 잘알수 있다.

온 겨레가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통일실현을 주장해 나설때 이회창은 외세와의 공조를 외쳐댔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할 때 이회창은 주적론, 대북강경정책을 제창했다. 더욱 참을수 없는 것은 미국상전에 빌붙어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덮씌우려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은 이번에 미국상전을 찾아가서도 온갖 아양을 떨면서 북은 변한 것이 없다느니 북의 핵개발에 대비해야한다느니 하고 발라맞추었고 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인 주한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고 대북강경, 대북압살을 청탁하는 것과 같은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북에서는 지난 1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3대 호소, 3대 제의를 제시했다. 지금 온 겨레는 북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만이 민족의 지향에 도전해 나서고 있다. 특등매국노 이회창이 늘어놓는 망발은 온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다.

우리 민족에게 해되는 짓만 하는 이회창이야말로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악질적인 독버섯이다. 독버섯을 없애려면 땅위에 돋은 부위만 잘라버려서는 안되고 뿌리째 들춰버려야 하듯이 이 사회의 독버섯처럼 돋아난 이회창을 제거해버리자면 한두마디의 호소만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대, 민족의 심판대 위에 끌어내 아예 숨통을 잘라버려야 한다.

독버섯에 중독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옳게 식별해 처리해야하는 것처럼 독성을 뿜어대면서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을 해치고 있는 이회창의 범죄행위를 똑바로 꿰뚫어보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그를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그토록 목마르게 바라는 통일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있고 동족인 이북을 헐뜯다 못해 외국에 가서까지 동족을 이빨에 칼을 물고 시비질하는 것과 같은 이회창역적인데요. 인간 독버섯 이회창은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죠. 그런데 그런 이회창역적이 지금 주제넘게도 대통령권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개꿈이라고 하겠죠. 우리 민중은 이회창반통일매국역적에게 절대로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2 – 13일

김정일장군님의 초상 모셔
부산 D신문

최근 부산의 D신문 인터넷 독자투고란에 ≪축 2.16≫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장군님의 초상이 모셔졌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은 화면에 3분의 2정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군님 초상밑에는 두드러진 글씨로 ≪그분의 눈길 천하를 굽어보신다. 그분의 의지 통일성업완성에로 불타오르신다. 그분 *** 7천만에게 사랑을 주신다. 아!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 장군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화면 맨 밑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작년 서울 경복궁앞에 모셔졌던 대형초상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독자들은 **김정일**장군님의 출중하신 풍모에 다시금 깊이 감복하면서 장군님께서 계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인 올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전권대표 귀국

평양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가 12일 이북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에 앞서 평양비행장에서 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방문의 기본성과는 푸틴대통령과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서명하신 모든 합의의 이행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하셨을때 그분과 인간적으로뿐아니라 동지적으로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이 훌륭한 관계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조 두 나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두 나라 지도자들이 합의한 철도연결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했습니다.

부시망발 규탄성명발표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미국대통령부시가 ≪연두교서≫라는데서 대북전쟁포고나 다름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의 이번 망발은 취임초부터 일관하게 지속되어 온 군사패권주의정책의 연장선상이며 오만하고 무지한 무력숭배자의 사고발상에서 나온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의 망언은 6.15공동선언을 기초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로 향한 시대의 흐름을 막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시의 망언을 평화와 통일을 한결같이 지향하는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온 세계 악의 중심축이며 한반도 긴장조성의 원흉이라며 성명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며 오늘도 생존의 벼랑끝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부시의 망언에 대해 치솟는 경악과 분격을 금하지 못하며 모든 조직역량을 총발동하여 세계의 평화와 친선,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애국민중, 세계 평화애호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규탄 성명
반미여성회

반미여성회가 1월 30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부시를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부시가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세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책동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의 망언은 올해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 통일운동의 획기적 전기를 이룩하려는 남북민중의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써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북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전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신자유주의 경제침탈로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파탄시키는 미국이야말로 악의 화신이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성명은 전쟁을 획책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방한 반대성명
전대기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은 7일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의 방한목적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 분열을 영구화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부시의 방한반대투쟁은 올해 우리 민족과 미제와의 첫 대결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학신문기자들은 부시의 방한을 막아나서기 위해 필봉을 휘날리며 온몸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3일

김정일총비서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전권대표를 만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음력설에 즈음하여 12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와 그 일행을 다시 만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정하철, 김기남,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성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과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겐나지예비치 까를로브를 비롯한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한 설인사를 나누신 다음 그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대통령전권대표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대통령전권대표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베트남공산당 총비서와 베트남주석이 꽃바구니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그이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베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농 득 마잉총비서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쩐 득 르엉주석이 꽃바구니를 보내여 왔다.

꽃바구니를 조선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도티 화가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에게 전달하였다.

6차 김정일화전시회개막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가 13일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최고인민회의, 내각사무국, 외무성, 인민무력부 등 전국 각지의 70여개 단위들과 개별적사람들이 출품한 1만 4,300여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되였다. 그 가운데에는 중국 단동 **김정일**화온실대표단과 여러 나라 주조대사관들에서 보내여 온 **김정일**화들과 20여개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의 명의로 된 **김정일**화들도 전시되였다.

전시회에서는 **김정일**화재배기술에 대한 재배경험도 교환하게 된다. 또한 우수한 단위들과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상도 수여한다. 개막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홍성남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중국, 로씨야,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 해외동포대표단들, 개별적인 화초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청년전위들의 경축대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청년전위들의 경축대회가 13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중린과 관계부문일군들, 수도의 수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김경호의 경축보고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은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최대의 경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 준 일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싸워 나가는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철저한 옹호자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축하편지가 채택되였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백두산밀영지구에서 개막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이 모임은 지난해 2월 꼴롬비아의 메델린에서 진행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올해에 백두산밀영지구에서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을 개최할데 대한 호소문에 따라 열렸다.

개막식은 수십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들에서 온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서 진행되였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에밀리아 페르난데스는 개막사에서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따라 나아갈 때 21세기는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재철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풍모,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심을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강성대국과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로씨야작가동맹 대표 알렉싼드르 브레쥬네브와 네팔시인 디파크샤르마 네우파네의 즉흥시들인 ≪백두산에 태양이 비친다≫, ≪민족의 태양 **김정일**령도자≫가 랑송되였다.

개막식에서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의 백두산선언이 채택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전권대표 기자들과 회견

로씨야련방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는 귀국에 앞서 12일 평양비행장에서 기자들과 회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전권대표는 이번 방문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문의 기본성과는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명하신 모든 합의의 리행을 다시금 확인한것이다.

또한 로씨야련방 ≪원동투자회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사이의 협조에 관한 비망록이 조인된것이다.

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께서 지난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시였을 때 그이와 인간적으로뿐아니라 동지적으로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이 훌륭한 관계를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다. 나는 이 동지적관계가 계속될것이라고 확언한다. 나는 로씨야와 조선 두 나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

김정일국방위원장동지의 접견을 받을 때 이러한 견해를 표시하였다.

나는 조선을 방문하기전에 뿌찐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지난시기 수뇌분들사이에 합의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리행할것이라고 하였다. 우리 원동련방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관계발전전망은 아주 좋다.

우리가 확신할수 있는것은 두 나라 지도자들이 합의한 철도련결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것이라는것이다.

만민이 드리는 칭호

지금 세계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격찬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그이께 이름 높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련이어 수여해 드리고 있다.

지난 1월 23일에는 벨라루씨 국제정보기술아까데미야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김정일**령도자께 명예원사와 명예박사칭호가 수여되였다. 지난해에 에꽈도르의 끼또자치종합대학과 모로나싼띠아고주, 뻬루의 빌랴 마리아 델 뜨리운포시와 마그달레나 델 마르시, 차챠뽀야스주, 우앙까료주, 프랑스 사업헌신협회에서 명예박사칭호와 명예시민증서, 열쇠, 명예상장과 금메달, 메달을 수여해 드리였다.

지금까지 3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그이께 90여개의 훈장과 메달을 드리였다. 그중에는 팔레스티나의 ≪성스러운 꾸드스 별훈장≫, 꾸바의 ≪련대성훈장≫, 프랑스의 리부르느시메달,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의 훈장 제1급 등이 있다. 그리고 1987년 4월 마다가스까르 또아마시나시에서 그이를 명예시민으로 추대한것을 계기로 가이아나, 뽀르뚜갈, 꼬뜨디봐르 등 세계 10여개 나라의 30여개의 도시에서 그이께 명예시민칭호와 열쇠를, 로씨야, 뻬루, 메히꼬 등 여러 나라에 있는 수십개의 대학들에서 그이께 명예원사, 박사, 교수칭호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으로 혁명하는 조선인민의 긍지 로동신문

≪로동신문≫ 12일부는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으로 혁명하는 조선인민의 긍지에 대하여 강조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과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이 지닌 사상제일주의신념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더욱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곧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 나가는 드팀없는 의지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20세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로정에서 불패의 위력을 발휘한 사상이며 21세기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는 등대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세상에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보다 더 좋고 위대한 사상이 없다는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 있는것이 바로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조선인민의 오늘의 풍모이며 투쟁기풍이다.

신문은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나감으로써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것이며 그 길에서 **김일성**민족제일주의영예를 높이 떨쳐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선군혁명 천만리
제1편 다박솔언덕에서(4)

로동신문 정론 주체90, 12월 15일

다박솔길은 주체혁명위업의 새 시대를 안아 온 오늘의 ≪ㅌ. ㄷ≫길이였다.

1926년의 ≪ㅌ. ㄷ≫길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와 영광스러운 자주시대의 탄생을 안아 왔다면 1995년의 다박솔길은 주체사상에 선군로선을 더한 력사의 새 시대, 선군혁명시대를 펼쳐 주었다.

수령님을 따라 온 주체의 천만리가 장군님을 따르는 선군혁명 천만리로 시대의 높이가 달라졌다.

로동계급의 혁명정신보다 한 단수 높은 새로운 시대의 말 - 혁명적군인정신이 나오고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로부터 혁명강군화에로 시대의 요구가 높아졌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지난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의 시대에는 강선이 시대정신의 고향이였다면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선군시대에는 다박솔과 같은 제1의 선군진지가 시대정신의 분화구로, 발단으로 되였다. 강선의 ≪쇠물철학≫이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불꽃이였다면 오늘은 ≪다박솔총대철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삶과 투쟁의 좌표가 되였다.

지난날의 로동가정으로부터 군인가정으로 가정혁명화의 척도가 달라졌으며 로동계급의 문화가 도시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인민군대의 문화가 사회로 흘러드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인민군대의 노래가 온 나라를 분발시키는 군가정치의 새 화폭이 펼쳐지고 있다.

장군님시대의 새로운 조선말인 ≪선군≫은 오늘날 지경을 넘어 벗들이 동경하고 배우며 교훈을 찾는 세계의 언어로 울리고 있다.

선군력에 부딪쳐 55년 분렬의 장벽에 금이 가고 선군의 초고압배짱에 눌리워 렬강들의 ≪평양행≫이 앞을 다투어 서둘러진 ≪2000년충격≫이 지구를 뒤흔들었다.

다박솔길은 세계에로 쳤다. 조국땅을 누벼간 장군님의 전선길이 광활한 대륙을 횡단하여 5만 5천리 대장정으로 이어 지는 제1의 국제사변이 터졌다.

사회주의 수호대전에서 승리한 세계적인 전승명장의 개선원정길과 같은 이 격동적인 장정과 함께 인류가 그처럼 고대하던 장군님의 세계진출이 이루어 졌다.

장군과 세계의 상봉, 여기에는 크나큰 력사적울림이 있다.

바로 선군의 궤도우에서 세계는 장군을 맞이했고 장군은 세계를 안으셨다.

자주화냐 ≪세계화≫냐.

다박솔은 이에 대한 무게있는, 결정적인 완전무결한 대답이였다.

참으로 장군은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만들어 놓으시였다.

력사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력사를 창조하며 세계를 이끌어 왔다. 다박솔은 행복을 속삭인다.

유정한 너의 이름은 백두산민족의 만대의 혈통을 이어 주고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 준 행운의 다박솔, 광명의 다박솔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의 선군해발이 여기서부터 빛발치고 총대에 뿌리를 둔 조선의 장군혈통이 이 푸른 언덕과 더불어 굳건히 이어지고 있음을 조국이여 긍지높이 노래하라.

다박솔을 잊지 말자.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심장의 호소, 선군시대의 긍지 높은 목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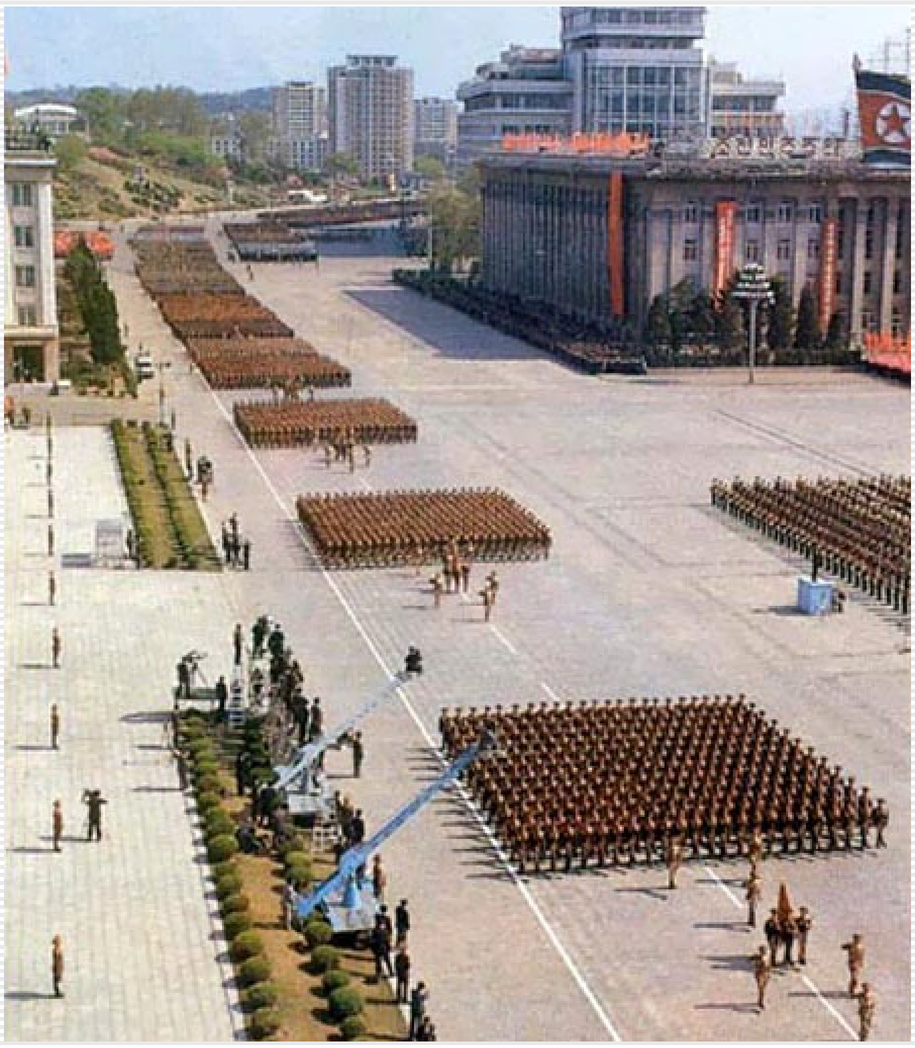
얼마전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 천만리력사를 생각하면 자주 다박솔초소길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피눈물을 안고 선군을 시작한 다박솔언덕길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첫 걸음을 잊으면 만걸음을 잃는다.

다박솔을 잊으면 천만리도 잃고 후손만대도 잃는다.

그렇다. 다박솔을 잊으면 인간이 아니고 혁명가가 아니다. 그것을 잊으면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도 잊게 되고 조국도 잃으며 자주세계도 잃는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창조하는 력사가 얼마나 성스러운것이며 21세기 백두산혈통이 어떻게 계승되여야 하는가를 알려면, 라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강성부흥아리랑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을 알고 저 멀리 소리쳐 오는 **김정일**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보자면 다박솔을 알아야 하며 다박솔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복의 열매가 커지고 승리가 더 많아질수록, 세월이 흘러 갈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더 열렬하게, 더 사무치게 다박솔의 95년을 생각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국과 인민을 한품에 안고 몸부림치신 장군님의 피눈물의 만고풍상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운명적인 기로에서 선견지명 있는 선택을 하신 그이의 천재적인 예지를 잊지 말아야 하며 죽음도 각오하고 일어 나 오늘의 백두산길에 오르신 그 비범한 영웅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눈물을 삼키시며 한자두자 애국의 친필서한을 쓰시던 95년의 1월의 그 비장한 새벽을 잊지 말아야 하고 여기 다박솔진지에 오르시여 저 멀리 만경대쪽을 바라보시며 한동안 말없이 서계시던 그 침묵의 1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병사들이 드리는 꽃다발을 받으시며 눈은 울고 입은 웃으시던 장군님의 그 가슴치는 심중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사랑하는 인민이 불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선군길을 가셔야했던 장군님의 그 가슴 에이는 만단사연을, 그래서 때로는 한밤중에 괴로운 심정을 달래시며 몇백리씩 차를 몰아 달리신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어찌 잊을수 있으랴.

다박솔언덕은 이제 선군시대의 전통이 되고 좌표가 되고 거울이 되였다.

그대가 누구이든 우리 시대 매 인간의 운명은 이 다박솔길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의 투쟁과 생활의 진정한 뿌리, 우리 시대의 모든 번영과 행복의 원줄기와도 같은 사랑스럽고 고마운 ≪나의 다박솔≫로 우리의 심장에 더욱 더 깊이 자리잡고 있다.

누구나 힘이 지치고 마음이 흐려 질 때면 여기에 올라 장군님의 크나큰 심장에 다시금 신념과 의지의 박동을 맞추며 삶과 투쟁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였다.

언제나 첫걸음의 정신, 첫걸음의 기백, 첫걸음의 속도로 장군님의 천만리 선군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오늘 ≪ㅌ. ㄷ≫를 추억하며 주체위업의 천만리길을 돌이켜 보듯이면 후날 우리 후세들은 다박솔길을 추억하며 선군혁명의 강성부흥시대를 긍지높이 노래하게 될것이다.

다박솔길, 오랜 세월 너의 이름은 없었다.

너를 불러 시대에 웨치기에는 너무도 범상한 언덕이였다.

그러나 력사여 오늘은 붓을 들어 세월의 갈피에 써넣으라.

다박솔언덕은 피눈물의 바다에서 조선을 구원한 선군혁명제일봉, 잠자는 인류의 머리우에 진리의 새벽종을 친 조선의 영원한 승리봉이다.

력사는, 후손만대는 이 지구우에 진리와 힘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한 슬기롭고 용맹한 정의의 수호명장이신 21세기 태양 **김정일**장군을 받들어 올린 다박솔혁명전설을 무궁토록 노래하게 될 것이다.

(끝)

사회주의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 강좌 제171회

김경희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3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87(1998)년 9월에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라는 구호로 우리 당과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를 내세우시고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으로 정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여러해째 계속된 고난의 행군과정에 여러운 일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돌파구가 열렸지만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은 계속되고 경제적 난관도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늘의 난관을 견인불발의 의지로 백배, 천배의 힘으로 강행 돌파해야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강행군의 길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보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사회주의 강행군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전체 인민을 새해공동사설을 중심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사상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이와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사상을 발동시키는 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 주체87(1998)년 1월 1일에 발표된 공동사설을 통해 그 해를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로 정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당적인 집중학습과 강연을 통해서 공동사설의 사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것과 함께 출판보도수단들을 통한 선전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편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강행군으로 불러일으키는 여러 대회들을 소집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87(1998)년 4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한 당 중앙위원회의 구호를 발표하도록 하시여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구호관철을 위해 각급 당조직들이 구호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침투시키고 구호의 기본정신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평양시 군중회의를 비롯해서 각 도시군 소재지에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군중대회와 집회, 강연, 해설담화, 예술선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을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구호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부글부글 끓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행군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자강도가 강행군의 맨 앞장에서 힘있게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단위의 모범을 창조하고 그 성과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일반화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 것은 대중영도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서 강행군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자강도에서 창조된 강계정신이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자강도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를 하셨는데 이 기간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과 강계뜨락또르연합기업소, 2월제강연합기업소, 2.8기계연합기업소, 강계정밀기계연합기업소들을 비롯한 공장기업소들과 강계시 장강읍, 성간읍, 청천읍을 비롯한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월 16일부터 21일까지의 며칠 사이에 육천여리의 험한 길을 걸으시며 열 아홉개 단위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강도 현지지도는 조선혁명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장군님의 자강도 현지지도가 조선혁명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으로 되는 근거는 우선 그것이 사회주의 건설을 앙양에로 이끄는 전환적 계기로, 경제분야에서 일대 고조가 일어나게 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였다는 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치켜드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대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시었습니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추동하는 시대정신인 강계정신을 온 나라의 모든 생산현장마다에서 철저히 구현해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나가자면 무엇보다도 그 봉화를 잘 지피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공화국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3월 9일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찾으시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셨습니다. 그이께서 성강에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성강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됩니다. 성진제강연합기업소는 규소강판, 베아링강, 고속도강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질높은 강제들을 다량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대규모적인 선강제 생산기지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후 어렸웠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선의 노동계급을 찾으시여 천리마 대고조를 마련하신것처럼 강행군을 하는 오늘 영웅적 노동계급과 인민에 의거해서 다시 한 번 천리마를 타고 세계를 주름잡아 나가자는 것이 오늘 동무들에게 제시하는 당의 구호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강의 로동계급이 분발하여 일떠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온 나라에 새로운 천리마 대고조의 불바람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리라는 굳은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성강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셨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일대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도록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석탄과 전력, 금속, 기계공업, 철도운수 부문들을 강행군 전투에 최전선으로 보시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초 석탄공업부문의 실태를 친히 요해하시고 탄광들에서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고 석탄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를 세우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를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며 중소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6월 희천시내의 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공작기계공장, 2월16일공장, 1월18일기계종합공장, 청천강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노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어 기계공업부문에서 대고조를 일으키시었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9.9절 거리와 4,2월여관을 훌륭하게 일떠서게 됨으로써 공화국창건 50돐에 드리는 자랑찬 노력적 선물이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업전선에서도 커다란 생산적 앙양을 일으키도록 지도하시었는데 우선 녹색혁명을 다그쳐 종자문제를 풀고 복합미생물비료를 생산도입해서 농업생산을 늘려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또한 풀먹는 집짐승을 기본으로 해서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이 힘있게 다그쳐져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해서 페루공산당 붉은조국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 인민은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물리치면서 용기 백배, 신심 드높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있다. 새 세기의 조선은 정치, 경제, 군사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둠으로써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떨칠 것이다.≫ 라고 격조높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공화국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시방한 앞둔 ≪지금은 비상시국≫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달 11일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발표 직후만 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문제와 차세대 전투기 도입문제 등의 현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한반대의 조심스런 움직임을 보였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이 방한시 F-15기 구입을 강요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연두교서에서의 이북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은 부시방한반대투쟁의 흐름을 가파르게 상승시켰다.

특히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가지며 한반도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흐름들이 모여 지난 6일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6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부시방한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하고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설 연휴 다음날인 14일부터 21일까지는 광화문 미대사관과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부시방한저지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15일에는 여성계 100인의 평화선언 및 기자회견이, 1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로 ≪부시방한 규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18일에는 오전 10시 명동 YWCA에서 각계인사가 ≪2002 한반도 평화선언≫을 진행한 뒤 광화문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 시국농성을 진행하고, 부시대통령이 입국하는 19일부터는 부시대통령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그림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시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르는 20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집중으로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강력하게 규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각 노조와 전농의 지역연맹, 전국연합의 지역연합 등은 모두 각 사무실에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로 하고 부시방한반대의 의지를 다지는 등 한마디로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비상체제에 들어간 셈이다.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며 ≪부시방한반대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간의 마찰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의 방한중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와 대북정책 공조 강화, 테러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의 협력방안 등 양국간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2/14

북 미사일 해법, 경제 보상에 달렸다

평화네트워크 정책제안 보고서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내몰고 있는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북의 대량살상무기 해법을 제안하는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는 14일 ≪이북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해법≫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북의 미사일 수출문제≫, ≪이북의 미사일 개발문제≫,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부시대통령이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비판한 데에는 미국의 식량지원,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수출과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생산해왔다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이북 미사일 수출문제 해법은 경제적 보상에 달려 있다.

정책제안서는 ≪이북이 적절한 보상만 이뤄질 경우 미사일 수출을 기꺼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혀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북의 미사일 수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외화벌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북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 수출을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이 이북의 ≪주권행사≫인 미사일 수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북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정책제안서는 ≪이북의 미사일 수출을 중단시키는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확산 및 대량살상무기 재원확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이북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북의 탄도미사일 해법은 부시정부의 대안제시가 관건

부시행정부는 북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및 동맹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MD 구축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 이외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북은 북미 미사일 협정의 지속적인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임할 경우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북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가 MD 구축의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북 미사일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합의 이행문제는 북-미간 정치적 타협 필요

북미관계의 기본틀(Agreed Framework)은 94년 10월에 맺은 북미 제네바 합의에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조기 핵사찰 수용을 계속 주장해온 미국과 경수로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북이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어 94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이 재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는 현재 북-미가 주장하는 경수로 완공연도의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이나 조기 핵사찰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다≫며 ≪이북의 조기 핵사찰 수용과 한-미-일의 전력보상을 교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이북의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 등 이북의 모든 군사력에 문제를 삼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이북의 화학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북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북을 CWC에 가입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생물무기에 대해 이북은 생물무기를 연구개발단계에서 본격적인 제조 및 생산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과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회원국이란 점을 들어 ≪부시 행정부가 BWC 검증의정서 채택을 비롯해 다자간 문제해결 방식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 이북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문제삼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전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이들 무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북이 느끼는 위협 역시 해소할 수 있는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철 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4

≪부시방한≫에 밀려난 ≪방한반대 시위≫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원천봉쇄≫

≪우리가 테러분자라도 됩니까? 무슨 근거로 1인 시위를 막는 겁니까?≫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을 닷새 앞둔 14일 오후 1시경. 부시방한반대 1인 시위를 위해 서울 세종로 미국 대사관 앞으로 향하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공동의장 강정구(동국대) 교수 앞을 전투경찰의 ≪인간 바리게이트≫가 막아섰다. 경찰 측은 부시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테러 위협을 우려하는 미 대사관측의 요청에 따라 대사관 주변 경비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강정구 교수는 ≪종로경찰서장이든 대통령이든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권리는 없다≫면서 ≪미국 눈치 때문에 국민 권리를 침해한다면 우리 법이 미국 이익의 종속물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테러 위협? 우리가 테러분자냐?

강정구 교수에 앞서 이날 오후 12시부터 방한반대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영우 신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상임대표 역시 대사관 접근을 원천봉쇄 당했다.

이김현숙 대표는 ≪예전 소파(한미군사협정) 개정 문제로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때는 뭐라 않더니 부시방한을 내세워 접근을 막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 측의 ≪과잉 경비≫를 비난했다.

이영우(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역시 ≪도대체 여기가 미국 땅인지 우리나라 땅인지 모르겠다≫면서 ≪테러 원인을 제공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더 큰 불의를 저지르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거세지자 경찰측은 아예 이들의 시위 방식 자체를 문제삼았다. 여러 단체가 부시방한반대라는 같은 목적으로 여럿이 모여 시위하는 것은 개별적인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자통협 측이 한 사람만 들여보내겠다고 밝히자 경찰측은 이미 불법적인 집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끝내 길을 열지 않았다.

진짜 테러분자, 전쟁획책하는 부시

결국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강정구 교수는 ≪가장 큰 테러분자는 전쟁을 획책하려는 부시≫라면서 ≪1인 시위에 나온 것도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번 부시 ≪악의 축≫ 발언은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면서 ≪해방 이후 뿌리깊은 숭미사대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김현숙 대표 역시 ≪부시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오는 목적이 적대적인 대북 정책과 무기 강매, MD 강행 등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평화쪽지 날리기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알리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각 부시방한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한 자통협,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소파개정국민행동 등은 경찰의 차단 근거를 없애기 위해 향후 1인 시위 일정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15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양비엔나 수녀가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미 대사관 앞에서 단독 1인 시위를 갖는다.

또한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에서 모여 여성 100인 평화요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가톨릭평화지기는 같은 날 오후 1시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부시방한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미국 대사관까지 십자가의 길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15일에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통일연대 ≪제4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등도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부시방한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김시연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4

≪월간조선≫의 색깔공세에 내려진 철퇴

재판부, ≪애기섬≫ 보도에 반론보도 게재 결정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을 이적 영화로 몰며 국방부를 ≪공격≫하고, 영화 사전검열까지 시도했던 월간조선이 재판부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은 데 이어 반론보도 결정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월간조선사(사장 조갑제)≫ 10월호에서 여순사건을 다룬 다큐멘타리 극영화 ≪애기섬≫을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우종창 기자)≫라는 제목으로 ≪여순사건을 왜곡·조작한 영화≫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장현필(37·영화 ≪애기섬≫ 감독) 씨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를 지난달 23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화해조서로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조선≫의 특집면의 좌측 상단 부분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월간조선은 3월호에 두 쪽 분량의 반론보도를 게재하게 됐다.

법원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지난해 10월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어진 것이며,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이 잡지 발행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간조선은 지난 98년 11월에도 최장집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현대사 논문에 대해 색깔 공세를 퍼부어 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월간조선의 사전검열에 의해 큰 곤경에 처했다

장현필 감독은 월간조선 3월호에 실리게 될 반론보도에서 ≪우종창 기자는 극영화(애기섬)를 단 1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비판한 것은 창작자의 고유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을 큰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사전검열과 이념공세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장 감독은 또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를 화해와 이해를 만들고 미래에 밝은 역사를 주고자 영화를 만들었다≫고 제작동기를 밝히면서 ≪월간조선은 자기 위주의 해석으로 여순반란사건으로 인식하며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항의했다.

특히 월간조선이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준 국방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국방부의 자해행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영화를 ▲여순 14연대 반란 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 간 영화(204쪽) ▲함포사격으로 양민 천명을 죽였다고 조작한 영화(205쪽) ▲여순반란사건을 통일운동의 성격을 띤 것처럼 그리고 국군의 진압작전을 양민학살로 부각시킨 영화(204쪽) 등의 왜곡된 표현으로 이적 영화로 몰아갔다고 반론을 폈다.

한편 장현필 감독은 순천시민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해 지난 1월 말 월간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5억원) 청구 및 정정보도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낸 상태다.

조호진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4

무장 미군병사 민간인 폭행 ≪말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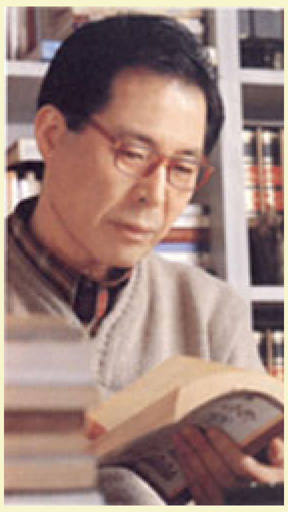
무장 미군흑인병사가 민간인을 무기로 폭행하는가 하면 대형 차량으로 밀어붙여 부상을 입히는 등 폭력을 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민속 최대 명절 설날인 지난 12일 밤 7시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 사는 우경복(47) 씨가 미 2사단 공병여단 82공병중대 소속 무장 흑인 미군병사에게 총 개머리판으로 어깨와 얼굴부위를 폭행 당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우 씨가 미군 트레일러가 마을을 통과하자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미군 흑인병사가 총과 차량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평면 장파리는 그 동안 미군 탱크가 농민들이 널어놓은 벼를 짓밟고 가는 등 스토리 사격장과 다그마 훈련장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계속돼 대책을 호소했었다. 이에 따라 미8군에서는 지난 해 8월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들어 차량통행이 재개되고 있다.

한편 미군 측에서는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회기자
오마이뉴스 2002/02/14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 인터뷰 (6)



22.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 대표님 말씀처럼 뭐 하나로 정해서 보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 하는데, 자치연대 대안으로는 중앙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하부 지역 단위에서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두관 군수의 예를 든다면 경남 도지사 선거니까 ≪민주노동당 경남도 본부나 거기에 준하는 규모의 인사들과 일차적으로 자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이죠? 그런 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23. 부시 미대통령이 우리 평화운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부시가 대통령 되는데 일등 공신이 랠프 네이더 녹색당이라 이야기합니다. 300만 표를 얻어 고어의 낙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경우 87년부터 비판적 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92년, 97년, 올해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노무현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진보정당으로서는 악몽 같은 비판적 지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토막토막 나누더라도 길게 얘기를 나눠 봅시다. 우선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부시 대통령을 말씀하셨는데 랠프 네이더 때문에 부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적 대 혼란은 문제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기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부시를 받아들이자 한 겁니다. 표로는 고어가 이겼습니다. 네이더 때문이라면 부시 표가 많아야 되는데 분명히 고어 표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득표도 많았고 플로리다 때문에 그렇지 선거인단도 많았습니다. 지나서 판명된 것 아닙니까? 플로리다 선거가 정당한 선거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느냐는 겁니다. 네이더 때문에 부시가 고어보다 표를 많이 얻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득표율, 선거인단 모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더는 미국에서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역할을 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 때 ≪50년만의 정권 교체≫ 얼마나 중요하냐?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 승리 21 즉, 진보진영의 독자적 후보인 권영길 후보가 50년만의 정권 교체를 그르치게 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 일반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권영길은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온 사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권영길이 김대중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표를 얼마가 되든지 일정 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여러 기관의 엄밀한 분석에 따르면 권영길이 이회창 쪽으로 갈 표를 가져온 것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50년만의 정권 교체, 진보진영의 후보가 아무런 좌우를 안 했다...

안타까운 것은 50년만의 정권 교체 때문에 진보진영 후보의 목소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때 진보진영의 학자들, 소위 개혁 그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권영길 후보 지지를 잠깐동안 유보하자. 또는 거둬들이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끝나면 ≪진보인사, 개혁인사, 진보그룹, 개혁그룹은 무조건 진보정당의 육성 ·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97년, 나아가 92년 때 했던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우리도 뛴다≫

민주노동당 · 사회당 등 일부지역 단일후보 추진…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성 정치권의 전유물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녹색평화당, 지방자치개혁연대 등 ≪제3세력들≫도 후보를 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남도지사 등 몇몇 전략지역에 공동브랜드로 단일후보를 내놓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공역단체장 출마 후보가 구체화된 곳은 민노당.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광주 등 6개 전략지역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장은 천영세사무총장과 이문옥부대표가 검토되고 있다. 부산시장은 김석준부산대교수로 사실상 확정됐다. 경남지사는 김두관 남해군수가 유력하다. 민노당은 특히 김군수가 시민 · 사회단체의 신망이 두터운 점을 감안해 자치연대, 녹색평화당 등과 공동브랜드로 포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장 후보는 민노당의 뜨거운 감자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노당 공천자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7천명의 당원을 갖고 있는 민노당 울산시지부는 동구청장 출신인 김창현지부장을, 7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민주노총 울산지부는 송철호변호사를 각각 밀고 있다. 양쪽은 오는 2월 20일 민노당 당원과 민노총 조합원 등 7만 7천명이 참여하는 총투표를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감정의 골이 깊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자칫 2000총선 당시 후보선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 때문에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진출 기회를 잃었던 과오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전국 지역 ·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들이 결성한 자치연대도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을 대구시장, 김두관 남해군수를 경남지사 후보로 내보낼 계획이다. 반조선노동당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사회당은 지난 1월 26일 인천시지부 대회를 열고 김영규 전인하대 교수를 인천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사회당은 곧 서울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도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당은 곧 서울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정식 창당할 예정인 녹색평화당도 5명 안팎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다는 계획 아래 후보 찾기에 나섰다.

한겨레21 제396호
설합본특대호

전쟁제국 迷國 Go Home!

윤재설 -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75 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 자신의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북, 이란, 이라크 등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며칠동안 행정부 주요인사들의 강경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됐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입에서 ≪이들 나라의 정권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쿠바, 이라크 등 눈엣가시인 나라들의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발상이 공화당 매파의 일반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북을 포함한 이른바 ≪악의 축≫ 나라들 정권을 바꾸겠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이미 미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끝나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초 미국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엔론추문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측면과 함께 하원 4백35석 전체를 비롯해 주지사 36명, 상원 34석을 새로 뽑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국내용≫이라는 분석이 그 중 하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는 ≪이북의 위협이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중국이라는 위협부담마저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부시의 발언은 엔론추문 희석과 중간선거 승리를 노리고 미국내 유권자들에게 한 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수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국방예산 증액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연두교서 발표 이전인 지난달 23일 예비역장교협회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국방예산 4백80억 달러 증액방침을 밝힌 바 있는 부시는 연두교서 발표 후인 지난 4일 총 3천8백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비 증액 문제는 공화당의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적자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긴장의 조성이 올 중간선거 최대 쟁점이 될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쪽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내정치적 의도만으로 이번 발언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이종석 박사는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보수주의에 기초해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이북 등에 대한 불신감, 9.11테러참사 이후 호전주의적 사회분위기와 함께 엔론사태와 중간선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테러전 승리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부시가 외교협상이 아니라 군사력에 기대는 공화당 정권의 세계전략에 기반해 유일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관건이 되는 미사일방어망 추진을 위해 테러지원,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등을 거론하며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국제관계학)도 ≪복합적인 의도에서 나온 말일 것≫이라며 ≪방한에 앞서 한국정부에 F-15 전투기 구매 압력을 넣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부시의 발언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완공 기한과 이북의 미사일 발사 유예 기한이 겹치는 2003년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연철 박사는 ≪경수로 완공까지 아직 3~4년이 남은 상황에서 미국이 핵사찰을 전제하면 이북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탈퇴나 핵시설 재가동, 미사일 발사 재개 등으로 맞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1년을 남이북이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1)

≪9월테제≫에 대한 해석 -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10월 19일

차례

▶ 글을 시작하며

▶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글을 맺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 2

.....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이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이 두 단계로 수행되는 것과 달리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수행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 전략적 과업(민족자주)이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자주적 민주정부, 자주적 평화통일)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의 수행과정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은 오직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안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금도 달라질 수 없는 불변의 철칙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은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과의 관계에서 선차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며,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근본과업으로, 다른 두 가지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도과업으로 된다.

우리가 민주정부 수립과 평화통일 실현의 전략적 과업을 말할 때, 언제나 ≪자주적≫이라는 규정적 개념을 앞에 내세워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수립될 수 있으며,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자주적≫이라는 개념은 남(한국)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민족해방이라는 특정한 전략적 과업을 뜻하는 것이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자주적≫이라는 개념은 남(한국)에서의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북(조선)에서의 민족자주의 전략적 과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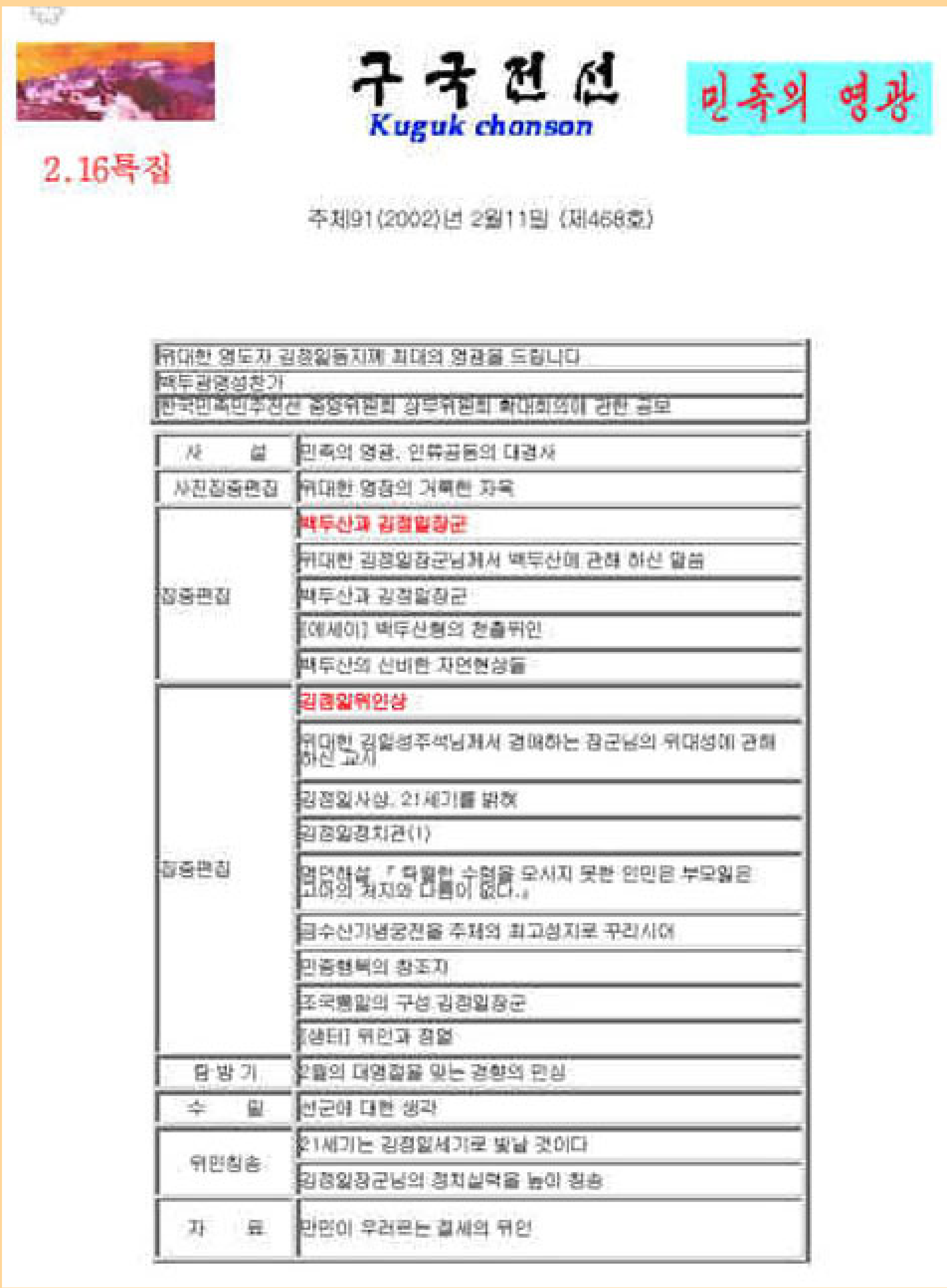
➡

광고

구국전선

주체91. 2.11 (468)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사설 - 민족의 영광, 인류공동의 대경사
사진집중편집 - 위대한 영장의 거룩한 자욱
≪**집중편집**≫ **백두산과 김정일장군**
≪**집중편집**≫ **김정일위인상**
위대한 주석님께서 장군님의 위대성에 관해 하신 교시
김정일사상, 21세기를 밝혀
김정일정치관(1)
탐방기 - 2월의 대명절을 맞는 경향의 민심
수필 - 선군에 대한 생각
위인칭송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실력을 높이 칭송
자료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



주체91(2002)년 2월11일 (제468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백두광명성찬가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사 설	민족의 영광, 인류공동의 대경사
사진집중편집	위대한 영장의 거룩한 자욱
집중편집	백두산과 김정일장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에 관해 하신 말씀
	백두산과 김정일장군
	[에세이] 백두산형의 천출위인
	백두산의 신비한 자연현상들
집중편집	김정일위인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관해 하신 교시
	김정일사상, 21세기를 밝혀
	김정일정치관(1)
	명언해설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인민은 부모잃은 고아의 처지와 다름이 없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시여
	민중행복의 창조자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
	[샘터] 위인과 정열
탐 방 기	2월의 대명절을 맞는 경향의 민심
수 필	선군에 대한 생각
위인칭송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실력을 높이 칭송
자 료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전략개념이다.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 가운데서 자주강령의 의미는 그러한 총체적 전략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자주적≫이라는 개념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과업,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지시해주는 개념이며,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세력의 직접적인 지배와 수탈을 겪었던 항일혁명시기의 식민지 민족해방의 혁명전통을 계승 · 발전시킨 역사적 개념으로 된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동력은 민족주체역량에서 나온다. 민족주체역량이란 남북해외에 존재하는 전민족적 범위의 주체역량을 뜻한다. 전민족적 범위의 주체역량이 반제자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전선을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민족주체역량은 남북해외의 각 지역에 병렬 · 분산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직 · 체계적으로 배치될 때 비로소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강위력한 동력으로 될 수 있다. 민족주체역량을 조직 · 체계적으로 배치한다는 말은 반제자주화운동의 다양한 동력을 지위와 역할의 일정한 차이에 따라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하고 배치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을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을 구분하고 배치하는 문제를 이해할 때 보조동력을 피동적이고 열등한 동력으로 평가절하하려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중심동력은 주체적이고 우월하지만 보조동력은 비주체적이고 열등하다고 착각하는 소아병적 오류는 피해야 한다.

반제자주화운동의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은 모두 민족주체역량을 구성하는 동력의 일부이므로, 보조동력도 중심동력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주체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을 그렇게 구분하는 까닭은,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은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위와 역할의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문제를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일면적, 단선적인 생각에 묶이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중심동력은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반제자주화운동의 보조동력은 남(한국)과 해외의 민족민주전선역량에서 나온다. 남(한국)과 해외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이라고 했지만, 이 글의 주제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보조동력을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남(한국)과 해외의 민족민주전선역량에 비할 바 없이 강대하기 때문에 반제자주화운동의 중심동력으로 된다.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은 모두 반제자주화운동을 추진하는 민족주체역량이지만, 그 역량의 강대성에서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지위와 역할에서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므로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되어 배치될 수밖에 없다.

남북해외의 반제자주화운동의 동력들이 그 지위와 역할에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구별되고 또 결집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지난 9월 18일에 작성하여 전국연합의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 제출한 특강원고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에 미흡하나마 내 생각의 일단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논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이 수행되는 경로를 생각해보자. 현 시기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은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차적인, 당면한 투쟁은 남북해외의 반제자주역량이 힘을 합쳐 주한미군을 철퇴시킴으로써 조 · 미 관계와 한 · 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이 당면 투쟁에서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기존의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비적대적 관계로 바꾸고 그에 따라 남(한국)에서 미군을 철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조선)에 대한 적대 · 말살 책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진배치해놓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첨병이며 동시에 남(한국)에 대한 지배 · 수탈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을 철퇴시키는 것은 북(조선)을 적대 · 말살하려 하고 남(한국)을 지배 · 수탈하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된다.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나머지 물리력은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현 단계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주한미군 철퇴운동에 자기의 동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조선)의 강력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자기를 적대 · 말살하려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첨병(주한미군)을 철퇴시키면 그것은 남(한국)을 지배 · 수탈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을 제거하는 것으로 되고, 그 물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친미예속체제는 자동적으로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하며 그 체제에 의해서 육성되고 존속되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도 크게 약화 ·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반미자주화운동을 결정적인 승리국면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도 또한 분명해진다.

(내일 계속됩니다)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 (5)

주체사상 총서 5권

조국통일 5대방침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북남의 전면적인 연계와 합작을 통하여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남북연방제는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현존하고 있는 두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을 연결시키는 단일한 연방기구를 창설하는 방식의 연방제이다.

연방국가는 어느 방안에 아무런 손실을 주지 않으면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당면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국가형태이며 북과 남의 접촉과 연계를 도모하고 강화하는 훌륭한 민족공동의 국가기구이다.

남북연방제는 그가 가지는 국호로 볼 때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다.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 위에서 존재하였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통일국가인 고려의 이름을 살린 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에 알맞는 것이다.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는 미제의 분열영구화책동을 짓부수고 북과 남 사이의 연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완전히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한다.

조국통일 5대방침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대외관계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대외활동분야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은 조선의 영구분열을 막고 통일위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위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통일도 되기 전에 북과 남이 각각 유엔에 들어가면 분열은 고착화되고 우리 나라는 두 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 북과 남이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들어가야만 나라의 영구분열을 막고 대외적인 공동활동으로 완전한 통일의 보다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해나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진출하면 민족의 영예와 슬기를 널리 시위하고 우리 민족의 국제적 위신을 높이게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민족적 단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외부세력의 간섭을 주동적으로 막으며 국제적 환경을 통일위업 실현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북과 남이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유엔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면 미제는 남조선강점구실을 완전히 잃게 되고 놈들이 남조선에 강요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협정≫과 ≪조약≫들도 무효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에 강요하여 꾸며낸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들은 무효화되며 지난날과 같이 유엔의 깃발을 도용하여 제멋대로 ≪조선문제≫를 토의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엔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입장과 주장을 세계인민들에게 똑똑히 알림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더욱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

참으로 북과 남이 국제관계분야에서 공동으로 진출할 데 대한 방안은 나라의 영구분열을 막고 조국통일을 다그칠 수 있는 길을 밝혀준 유일하게 정당한 현실적 방안이다.

(끝)